

프랑스 대규모 시위, 주요 도시 혼란

긴축 정책 반대 '국가 마비' 시위, 주요 도로 봉쇄

프랑스 전역에서 10일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도로와 학교가 봉쇄되고 주요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BFM TV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날 오후 기준 전국에서 812건의 집회와 봉쇄가 확인됐으며, 시위 참가 인원은 17만5천명에 달했다. 경찰은 불법 행위로 473명을 체포했고, 이 중 339명을 구금했다. 구금자의 약 3분의 1은 파리에서 발생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파리에서는 북역과 샤프레 레알, 레퓌블리크 광장 등지에서 시위가 집중됐다. 시위대는 북역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차단해 외부에서 수 시간 대치가 이어졌다. 샤프레 레알 일대에서는 오후 3시부터 대형 쇼핑물과 지하철·RER역이 폐쇄됐고, 인근 한 한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의 통제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위대는 '마크롱 탄핵', '마크롱 타도' 구호를 외치며 일



▲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앞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부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벽돌과 쓰레기통을 경찰에게 투척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대기업의 부와 증시 배당금은 사상 최고인데, 왜 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학생과 공무원 등도 참여해 공휴일 축소와 생활 불안정, 긴축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시위는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7월 발표한 긴축 재정안에서 비롯됐다. 그는 국방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 지출 동결과 공휴일 이틀 폐지를 제안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시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10일 '국가 마비' 운동을 제안했고, 애초 평화적 보이콧으로 기획된 행동은 극좌 성향 정치세력과 강성 노조의 합류로 대규모 시위와 봉쇄로 확산됐다.

시위는 전국 교통망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가 봉쇄돼 차량 운행이 막혔으며, 철도 파업으로 열차 운행도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교육부는 약 100개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됐고, 이 중 27곳은 완전히 봉쇄됐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노조는 실제로는 약 150개 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루브르 박물관 일부 전시실이 문을 닫았고, 시내 상점들은 폭력 사태에 대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브뤼노 르타이오 전 내무장관은 이번 시위가 극좌 세력에 의해 왜곡됐으며 "검은 옷과 복면을 한 소규모 집단이 시민 운동을 가장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팔 대규모 폭동, 정부 청사 불타

SNS 차단, 고위층 부패에 분노 폭발, 전 총리 부인 사망

네팔에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와 고위층 부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다. 교도소 습격과 방화 사태까지 벌어지자 군 병력이 도심에 배치됐다.

시위대는 람 찬드라 포우렐 대통령 관저와 정부 청사, 정치인 자택에도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부인이 사망했고, 사임한 샤르마 올리 총리 자택을 포함해 최소 24명의 정치인 관저가 불탔다. 올리 총리가 물러났음에도 시위가 멈추지 않자 당국은 군을 투입해 주요 도심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EFE통신에 따르면, 시위대는 9일 중부 간다키주 포카라의 카스키 교도소를 급습해 건물 일부를 파괴하고 수감자 약 900명이 탈출했다. 같은 날 서부 수도르파스침



▲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시위대가 난입한 뒤 불길에 휩싸인 상하두르바르 궁전. 사진=EPA연합뉴스

주의 카일라리 교도소와 중부 바그마티주의 랄리트푸르 교도소에서도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네팔군은 성명을 통해 "일부 세력이 불안을 틈타 민간인과 국가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체를 촉구했다.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도 SNS를 통해 "나라의 미래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귀가를 호소했다.

국제 사회 역시 우려를 표했다. 유엔은 시위대에 폭력 자제를 요구하며 대화를 촉구했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네팔의 모든 형제자매가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26개 등록되지 않은 SNS 접속을 차단한 것이 직접적 발단이었다. 여기에 부패와 경제 침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젊은 층이 대거 시위에 합류했고, SNS에

서는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 생활과 서민층의 고통을 대비한 영상이 빠르게 확산돼 분노를 키웠다.

경찰은 8일부터 최루탄, 물대포, 고무탄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으며, 지금까지 20여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게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퍼즐 정답									
2	9	4	7	1	5	8	3	6	
7	1	8	9	6	3	4	2	5	
3	5	6	2	4	8	7	9	1	
8	2	7	1	5	4	3	6	9	
4	3	5	6	9	2	1	7	8	
9	6	1	3	8	7	2	5	4	
5	7	9	4	2	1	6	8	3	
6	4	2	8	3	9	5	1	7	
1	8	3	5	7	6	9	4	2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